

새사랑, 후학사랑에 새처럼 바빠 움직이는 새박사

옆에서 본 저자 이우신

신준환

이우신 선생님을 우리는 그냥 새박사라고 편하게 부른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산에 다니면서, 새에 관한 이런저런 설명을 잘 들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새박사가 《아외원색도감 한국의 새》를 쓰더니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를 쓰고 <출판저널>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기쁜 일이다. 우선 저자로서 영광스러운 일이라 축하부터 해야 하겠지만, 우리처럼 자연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나온 《아외원색도감》이 새를 보고 구별하는 기준은 잘 설명하고 있지만 새라는 것이 소리만 나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 이제 소리만 듣고도 새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우신 선생님과 산에 다니면서 재미나게 배운 새소리가 있다. 삵꾸기와 검은등삵꾸기, 병어리삵꾸기, 두견이는 형태를 보고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소리를 들으면 금방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은등삵꾸기는 울음소리가 “홀딱 벗고, 홀딱 벗고”라고 들리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새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검은등삵꾸기의 울음소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었는데, 이 새 소리는 산에서 비교적 자주 들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아는 척하면서 새의 세계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새박사는 덩치는 크지만 매우 부지런하다. 새박사와 같이 출장을 갈 때에는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한다. 새들을 관찰하기에는 이른 아침이 좋기 때문이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출장을 갈 때 각 지역 전문가에게 인사를 하고, 정보를 나누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자연공부에는 지역성이 매우 중요하다. 생물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확인하고 음미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도 지역에 따라 사투리가 다르지만, 새들도 지역마다 울음소리가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우리가 다른 지방을 여행할 때는 그 지방의 독특한 경관만 보고도 색다른 기분을 느끼지만, 그 지방 주민들의 토속적인 사투리까지 들으면 완전히 그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별세계에 사는 것 같은 아름다운 새를

보고 그 새소리까지 구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까? 이런 새를 공부하는 사람은 분명히 색다른 이상을 품고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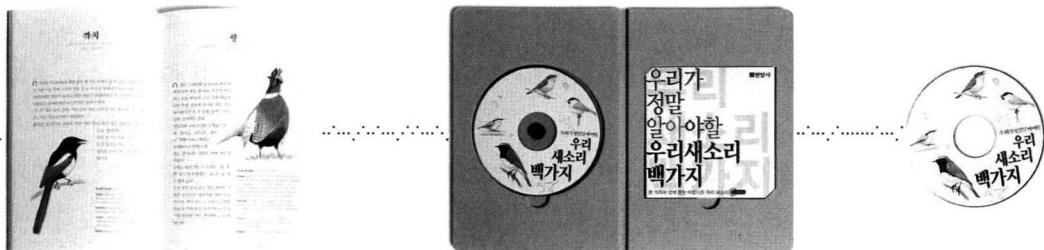
사실 내가 학교에서 이우신 선생님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별종을 만난 것 같았다. 커다란 덩치에 사진기와 망원경을 메고 다니는 모습이 공부와는 거리가 먼 한량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통계수치나 들며 분석적인 사고를 자랑해야 공부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때였다. 그런데 연구실에는 별로 붙어 있지도 않고 사진기나 메고 왔다갔다 하였으니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별종으로 보였던 것이다. 사실 그때 우리 학교에는 새를 가르칠 교수도 없어서 혼자 공부를 해야만 되었는데, 그나마 이우신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었던 자연환경보전연구실에는 다른 대학원생도 없었다. 지금도 청년실업이다 뭐다 해서 젊은이들의 앞날이 막막하지만 그 때에도 대학원생의 앞날은 막막하였다.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도 없이 앞도 보이지 않는 미로를 헤매면서 스승도 없는 길을 더듬어 갔으니 자신만의 독특한 꿈을 꾸지 않고는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우신 선생님은 새의 표본을 만들어 학교에 기증하였는데 필자와의 인연은 또 한번 깊어진다. 그 당시에는 참으로 어려울 때라 지금 같으면 애플 핸드폰 값이나 옷값 정도의 표본장을 만들 돈이 없어 필자가 마련해야 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에는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조교의 월급도 한 사람 몫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주거나, 아니면 반을 잘라서 타자수를 고용하였는데, 필자의 보직교수는 필자의 자존심을 살려 주기 위해 돈을 잘

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고 남은 돈은 필자가 스스로 알아서 은행에 넣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모인 돈도 2년이 지나자 꽤 되어서 교수님들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상의한 결과 먼저 새의 표본장을 만들고, 남은 돈으로 그 당시에는 귀했던 개인용 컴퓨터를 사서 학과에 기증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필자도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웠지만 꿈을 다듬으며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라, 이심전심으로 이우신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당시로는 드물게 뒷면에는 거울도 달고 한껏 멋을 부려 표본장을 제작하여 진열하였다. 그리고 이우신 선생님은 더 나은 공부를 위해 외국 유학길에 오르고, 돌아와서는 필자와 같이 임업연구원에 근무하다가 모교로 가서 새를 포함한 야생동물을 가르치고 있다. 드디어 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생긴 것이다. 이우신 선생님은 새박사라고 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후학들도 무척 사랑한다. 필자와 만나면 거의 반은 새 이야기를 하지만 나머지 반은 후학들의 진로 탐색에 애를 쓴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길을 내고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드디어 여명이 밝아 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가 나왔다. 아침 일찍 온 숲을 흔들어 깨우는 새소리. 이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명주실 같은 아침 햇살 가락을 잡고 비단을 짜듯이 하루하루를 멋지게 엮어낼 수 있으리라. 그토록 큰 덩치의 새박사가 정말 섬세한 깃털을 다듬고 있으니, 필자는 백오동이 나 한 그루 심어야겠다. ■



이 글을 쓴 신준환은 서울대학교 농생대 산림자원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임업연구원 산림생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산림생태계 변화과정, 생물다양성 보전, 사람들의 문화와 자연과정이 엮여낸 경관생태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